

ARTS FRIEND

Ulsa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Vol. 196



07.08

뮤지컬 '맘마미아'

July-August 2016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6
July + August

07 + 08

Arts Friend

Ulsa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Vol. 196

Special Performance

04 / 기획공연 I

뮤지컬 '맘마미아!'

06 / 기획공연 II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08 / 기획공연 III

연극 '엘리펀트송'



09 /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

작가와 청소년의 공감 프로젝트

10 / 기획전시 I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6
「7~8월의 작가 이미영 展」

12 / 아트 클래스

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

Special Exhibition

+
Art Class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6년 7·8월호 통권 196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T. 052-226-8242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김광래

기획·편집 박용운, 이은경, 최미화, 김아람, 조은경, 서동원,
권혁민, 김내영, 남현정, 이순삼

디자인·제작 디자인 큐브 T.052-272-2842

Art & Performance

14 / 울산시립합창단

차세대 거장과 함께하는
마에스트로 콘서트

16 /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브람스의 여정 Ⅲ

18 / 울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민들과 함께하는
2016 열린음악회

20 / 울산시립합창단

8월 남량특집 기획공연
'무서운 음악회'

22 / 울산시립무용단

'우리소리 판타지'



25 / 김진홍의 이탈리아 통신

VERONA

28 / 예술을 말하다 I

음악의 도시,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30 / 예술을 말하다 II

부세의 중국풍 춤

32 / 예술을 말하다 III

가면무도회

34 / 김용진의 Piano Forte

지중해의 섬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Art & Story

Information

36 / 7·8월 공연·전시 가이드

43 / Arts Friend 회원 가입 안내



Special Performance | 기획공연 I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MAMMA MIA!



당신의 인생이 빛나는 순간!

뮤지컬 맘마미아!

7월 12일 ~ 17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아온다!

IT'S SHOWTIME!



2016. 7. 12(화) ~ 17(일)
평일 19:30/토 15:00, 19:30/일 14:00, 18: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052-275-9623 ucac.or.kr
1544-1555 ticket.interpark.com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모두가 <맘마미아!>와 함께 행복해질 순간!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서울 포함 33개 도시, 1,400여 회 공연, 170만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맘마미아!>가 2016년, 또 한번 대한민국에 '맘마미아! 新바람'을 불어넣는다. 2012년 울산 공연 이후 4년 만에 다시 울산을 찾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더 강력해진 캐스팅과 짜임새 있는 구성을 기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와 감동으로 관객을 찾아간다.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쓴, 뮤지컬 <맘마미아!>

블루오션! 대한민국 중·장년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오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중·장년층의 대표 향유물이었던 아바(ABBA)의 음악이 모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완벽하게 엮여 있다. 그 결과 <맘마미아!>는 치열했던 젊은 시절 아바(ABBA)의 음악으로 위로 받았던 이들이 어느새 중·장년이 되어 공연장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즐기는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이보다 더 화려할 순 없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강력하고, 새로워진 캐스팅!

지난해 6월, 18세부터 55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 1,200여 명의 지원자들이 2016년 뮤지컬 <맘마미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던 이번 오디션에는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었던 원년 멤버와 차세대 <맘마미아!> 주인공이 될 실력과 배우들이 선발되어 2016년 뮤지컬 <맘마미아!>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최정원, 신영숙(도나), 전수경, 김영주(타냐), 이정미, 홍지민(로지), 남경주, 성기운(샘), 이현우, 정의욱(해리), 오세준, 호산(빌), 박지연, 김금나(소피), 심건우(스카이) 등 37명의 배우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의 <맘마미아!>를 선사할 것이다.

한국 뮤지컬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에서 공연된 뮤지컬! 2005년 대구에서 한국 지방공연 역사상 최초, 최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 뮤지컬 <맘마미아!>는 2010년 5월부터 1년간 23개 도시에서 202회 공연을, 2012년 3월부터 1년간 21개 도시에서 128회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뮤지컬 <맘마미아!>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뮤지컬로 명성을 높였다.

서울발레시어터의
인기 레퍼토리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1세기 소녀 앨리스와 함께
TV속으로 떠나는 환상모험



2011~2012년 2년 연속 한문연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원작 소설을 서울 발레시어터의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의 참신하고 기발한 해석으로 만들어진 발레 작품으로, 서울발레시어터의 가족발레 시리즈(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백설공주, 코펠리아, 호두까기 인형)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작품이다. 2000년 아르코예술극장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2년 동안 177회를 전국을 찾아다니며 공연했다.

2011년, 2012년에는 2년 연속 한문연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어린이를 위한 또 하나의 레퍼토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인 만큼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2016. 8. 19(금) 19:30, 8. 20(토) 14: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2만원(유아, 초, 중, 고등학생 50%할인)

36개월 이상 관람가 (관람등급미만 입장불가)

052-275-9623 ucac.or.kr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숨겨진 ‘음악’ 이야기

작품은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시공간의 변화와 다양한 특수효과 그리고 클래식 음악 및 현대음악, 테크노 음악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음악 선곡으로 관객들을 빠르게 작품 속으로 몰입시킨다. 음악의 선곡은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총 22개의 음악이 전체 4막으로 나뉘어져 연주된다. 작곡가는 스트라빈스키, 헨델과 같은 클래식 작곡가부터 Yello, Brian Slavson 등의 현대음악가나 팝아티스트들은 물론 테크노 음악까지 총망라되었으며 화려한 의상과 무대장치 등이 공연의 극적 효과를 높인다.

놀라운 점은 사용되는 음악이 연대도 장르도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를 위해 맞춰진 음악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음대로 유명한 줄리아드 예술학교(The Juilliard School)를 졸업한 안무가 제임스 전이 직접 선곡하고 편집해, 음악적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작품이다. 엄마가 앨리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에서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엔터 쓰리 세일러스(Enter three sailors)’가 사용된다. 또한 늑대들이 병아리들을 잡아먹는 장면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을 힙합으로 편곡한 라크로스의 ‘세이프 미(Save Me)’를, 카드 나라 장면에서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오페라 〈캔디드〉의 서곡과 같은 현대 클래식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듯 서울발레시어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하거나 또는 각 장면의 성격에 맞는 곡을 사용해 발레 동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뛰어노는 환상의 세계

소설이 원작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미 만화와 영화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무용의 경우 작품 이해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스토리텔링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발레 공연이다.

앨리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줄 뿐 아니라 숨은 의미들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며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앨리스의 이야기가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 위에서 펼쳐져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린이들에게는 고전의 서정성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동심을 회상할 수 있는 멋진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갈 것이다.



전세계를 매료시킨
괴물같은 작품!

연극 엘리펀트송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두 배우의 게임!
서울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화제의 연극 <엘리펀트송>

2016. 7. 1(금) 20:00, 7. 2(토) 15:00, 18: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3만원
중학생 이상 관람가
052-275-9623 ucac.or.kr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연극 <엘리펀트송>은 밀도 높은 긴장감과 강렬한 스토리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순식간에 떠오른 화제작이다.

2004년 캐나다 초연 후 세계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으며 프랑스 토니상으로 불리는 몰리에르 어워드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된 수작으로 동명영화 <엘리펀트송>으로 국내 관객과 먼저 만난 후 2015년 아시아 최초 한국 초연무대에 오르고, 2016년 다시 한 번 흥행 돌풍을 이끌어내며 대학로 최고의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고의 배우들이 만났다! 막강캐스팅!

등장 인물들의 고독과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을 섬세하게 표현할 최상의 캐스팅! 아름답고 영민한 마이클,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말이 필요없는 배우 박은석, 정원영.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정신과의사 그린버그, 무대의 깊이를 더하는 연극계 베테랑 이석준, 고영빈! 불안함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피터슨, 강인하면서도 다정한 매력의 정재은, 고수희!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 만드는 밀도있는 호흡을 한 무대에서 만난다!

대담하고 강렬한 스토리,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스릴러

정신과 의사 로렌스의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남자의 심장 쫓깃한 두뇌게임!

마지막 목격자인 마이클은 진실을 담보로 게임을 시작하고, 그린버그 박사는 서서히 그 게임에 말려든다.

끊임없이 던져지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힌트와 복선들.

물흐르듯 진행되는 드라마 속에서 관객들은 공연의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작가와 청소년의 공감 프로젝트

참가자 선착순 모집



울산문화예술회관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상설교육장에서 체험교육 프로그램 「작가와 청소년의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회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 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체험교육 아카데미 「박진아의 모래랑 빛이랑」, 「어린이 레지던시」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작가와 청소년의 공감 프로젝트」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가로서의 삶, 가치관 등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해와 미래 잠재적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번 프로그램은 ‘나만의 장소(SPACE)’라는 주제로 개인적인 경험, 기억,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연필, 콩테, 물감,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와 드로잉 기법을 탐구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산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성란, 윤혜정 작가의 1:1 멘토링은 물론, 개별 작품제작 등 흥미진진한 다방면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취지이자 목표이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매일 2시간씩 총 3회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5,000원으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당 15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www.ucac.or.kr)이나 전신팀(226-8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6. 7. 28(목) ~ 7. 30(토), 3일간
매일 14:00
상설교육장
참가비 : 5,000원(재료비 포함)
신청방법 : 2016. 6. 20(월) ~ 6. 29(수)까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6 7~8월의 작가 이미영展

2016. 7. 1 (금) ~ 8. 29 (월), 60일간
갤러리 씬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6의 네 번째 주자인 「7~8월의 작가 이미영展」이 7월 1일부터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씬”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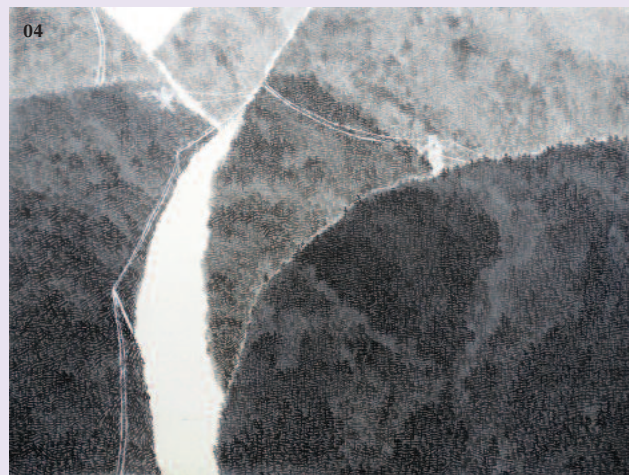
이미영 작가는 ‘그곳’이라는 주제로 직접 경험하거나 상상으로 부여된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공간을 표현한다.

작가는 동양사상에 근간을 두고 공간을 열린 문 너머로 무한하게 뻗어 나가는 끝없는 자연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평면 속에 자연이 이입됨으로써 캔버스는 확장되었으며, 그 공간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가고자 하는 현재진행형의 사유의 공간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관람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깊게 들여다보게 만든다.

- 01 어느 봄 날에 I, 20호, 장지, 혼합재료
 02 그곳 I, 20호, 장지, 혼합재료
 03 어느 봄 날에 II, 15호, 장지, 혼합재료
 04 집 가는 길, 100호, 장지, 먹

마치 꿈을 꾸는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가의 작품은 잠재된 자아, 내면의 감성, 사고의 자유를 표현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개념을 사유하도록 이끈다.

자연이 주는 특유의 공기는 늘 우리에게 안정감과 알 수 없는 침묵을 안겨준다. 바쁜 일상에서 맘 놓고 편안히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일 것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휴식과 여유가 있는 자신만의 의미있는 공간을 찾아보길 바란다.



PROFILE

이 미 영 / 7·8월의 작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재학

〈개인전〉

2014 드로잉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3 불교 수묵화 초대전 (통도사, 양산)

〈단체전〉

2015 울산미술협회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4 울산미술협회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3 울산미술협회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2 공존과 소통展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울산예총 나눔예술제 (울산대공원, 울산)
울산미술협회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부산 청남 회화대회 입선

현. 한국미술협회, 울산미술협회 회원, 가람 한국화 연구실운영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



문화예술회관하면 공연·전시를 감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설렘을 더해주는
것이 있다.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흥미
롭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 회관의 교육
‘아트클래스’이다.

따뜻한 봄의 계절,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아트
클래스가 확대되어 예술, 음악, 미술, 사진, 서예과목이 새롭게 선보여
12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론과목에서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노하우와 다방면적인 시각제시를
통한 예술의 접근방식과 함께 자신만의 예술론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실기과목은 각 전문가들의 섬세한 개인별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져 과목별 특색을 살린 특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새로운 배움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주부·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모였고 “더 긴 기간 배우고 싶다.”, “다른 강좌도 더 듣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중, 클래스의 이해를 수강한 정구창님과 미술의
이해를 수강한 고영숙님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클래식의 이해 | 정구창 님

아트클래스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우연히 문예회관 홈페이지에 공연예매를 하다가 아트클래스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악을 즐겨 듣는 데 수강을 하며 단편적인 부분을 넘어 전문적으로 깊이 알게 되고 같이 수강하신 분들과 공연장에서 만나 교류도 하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수강하시면서 생각도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말러, 작곡가의 주변 환경 · 역사를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이며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생소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천인교향곡을 끝까지 제대로 봤는데, 너무 좋아 구매편이 이어졌습니다. 말러 음악 애호가를 말러리안(Mahlerian)이라 칭하는 데, 저 또한 이번 기회에 말러리안과 가깝게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모닝콘서트, 시립합창단, 무용단의 공연으로 한 달에 4~5번의 공연을 관람하며 저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트클래스'에 바라는 점 말씀해주세요.

차후에 계획이 미리 공고되고 낮과 밤, 다양한 시간대를 통해 꾸준히 상설운영이 되어 클래식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의 이해 | 고영숙 님

**아트클래스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작년 봄부터 수강을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배움을 원했으나 부모님과 의견에 부딪쳐 있고 지낸지 40년 만에 다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그림을 그리는 데 '화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는 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등'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작가에 대한 공부 · 미술이론에 대한 갈증이 생겨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수강하시면서 생각도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추상화가들, 예를 들면, 피카소 · 김환기의 작품의 경우 처음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사실적인 표현 추구를 시작하였으나 점차 변해 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작품을 보는 눈, 여유로움 마음을 주었습니다. 관련 전시를 찾아다니며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매개체가 되는 곳'입니다.

'아트클래스'에 바라는 점 말씀해주세요.

아트클래스는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중심이 되는 곳 이기에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하여 문화예술이 못 미치는 원거리 지역까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차세대 거장과 함께하는
마에스트로 콘서트

T H E
R I S I N G
M A E S T R O
C O N C E R T

2016. 7.12(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천원 (회관회원 30% 할인 |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공연문의_ <http://www.ucac.or.kr> T. 275-9623~8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PROGRAM

1. STAGE

객원 지휘 / 이성훈

Alleluia / Alejandro Consolacion II

Nada te turbe With Cello solo / Joan szymko

O magnum mysterium / Ola gjeilo

객원 지휘 / 이성훈

2. STAGE - 한국 현대 합창

객원 지휘 / 장윤정

부끄러움 / 우효원 편곡

별 / 조성은 곡

고등어 / 오병희 곡

세노야 / 조혜영 편곡

3. STAGE

객원 지휘 / 이성훈

목련화 / 박지훈

진달래 꽃 / 윤학준

고독 / 조성은

4. STAGE - 현대 합창

객원 지휘 / 장윤정

Alleluia / Jake Runestad

Stars accomp.Synth / Ēriks Ešensvald

The Ground / Ola Gjeilo

Fly to the moon / arr. Kirby Shaw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 전공
- 이탈리아 Novara 국립음악원(성악 Diploma)과 Academia Europea(합창지휘 Diploma) 졸업
- Milano SS. Martini 합창단 지휘
- 제2회 세계 합창 올림픽 Musica sacra a Capella, 제4회 탐라 전국 합창 축제, 비엔나 슈베르트 국제음악 콩쿠르 무반주 음악, 일본 다카라초카 국제 콩쿠르 바로크와 현대음악, 부산국제합창대회 클래식 등 입상
- 현) 부산대학교 합창 지도교수
월드엔젤피스 예술단 합창 감독
한국합창연구학회 연구회원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부산가톨릭합창단 지휘자

객원 지휘 / 장윤정

-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및 동대학원 합창지휘 석사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합창지휘 박사
- KTF 청소년 합창단, 서초구립합창단, 중앙대 혼성합창단, 선화예교 합창단,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김포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마니피캇 어린이합창단 지휘 국립합창단 부지휘 역임
- Denton Bach Society Choir & Orchestra, Canticum Novum, Dallas Master Choral 부지휘 및 객원지휘
- 중앙대, 선화예교, 가톨릭대학원 출강
- 한국합창연구학회 회원
- 현) 마니피캇 챔버 콰이어
명동성당 가톨릭 여성합창단 지휘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브람스의 여정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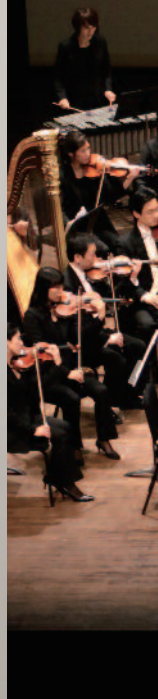
>>> 2016. 7. 22(금) 20:00 대공연장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네 번째 시간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과 2015년 제67회 프라하 춘계 국제 콩쿠르 1위 입상, 음악적 감수성과 탁월한 연주력에 빛나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의 협연으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클라리네티스트 / 김상윤



지휘자 / 김홍재

브람스의 여정 Part. III

1883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 중 가장 힘이 있고 웅장하여 베토벤의 3번 교향곡 영웅과도 곧잘 비교된다.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은 교향곡 제2번보다 상대적으로 씩씩한 느낌에 차 있고, 특히 마지막 악장이 비극적이면서도 당당한 구도로 엮여져 있다.

음악적 감수성과 탁월한 연주력이 돋보이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2015년 제67회 프라하 춘계 국제 콩쿠르 1위 입상자 및 현대곡 연주입상자인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은 2014년 제1회 UNISA 플루트 & 클라리넷 국제 콩쿠르 우승과 함께 바로크 및 클래식



Brahms

PROGRAM

곡 연주상, 콩쿠르 위촉 현대곡 연주상, 2012년 제1회 자크 랑슬롯 클라리넷 콩쿠르 우승, 2015년 제3회 겐트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입상 등 음악적 감수성과 탁월한 연주력으로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명성을 쌓아왔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622

클라리넷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가운데 저음역과 고음역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고아하고 품위 있는 정감을 잔뜩 풀어놓는 이 곡은 모차르트가 클라리넷을 위해 작곡한 유일한 협주곡이자 협주곡 장르에서의 마지막 완성품이다.

• 슈트라우스 / 교향시 “돈환” 작품20
Symphonic Poem Op. 20 “Don Juan” / Richard Strauss

•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622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v 622 / Mozart
〈클라리넷 김상윤 / Clarinetist Kim Sang Yoon〉

-Intermission-

•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가장조 작품90
Symphony No.3 in F Major Op.90 / Brahms

좌석 V석 2만원,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할인 회원(30%), 초·중·고(50%), 단체 10인 이상(20%)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울산시민들과 함께하는 2016 열린음악회

2016. 8. 27(토) 20:00 울산대공원 옥외공연장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달래줄
2016 최고의 야외 음악회,’



* 상기 이미지는 2015년 공연 사진이며,
2016년 공연에서는 출연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이 펼치는
감성 돋는 열린 음악회,’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 송유진

영화 O.S.T.와
뮤지컬 베스트곡이
야외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울산시립
합창단

8월 낭랑특집
기획공연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무서운 음악회

2016. 8. 18(목) 20:00 소공연장



2016년 한여름 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상상초월 서스펜스!

PROGRAM

* 연출 및 연주자 사정에 의해 곡목과
연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Phantom of the Opera 中

1. Overture
2. Angel of Music
3. Music of the Night
4. All I ask of You
5. Point of No Return

Jekyll and Hyde 中

1. Confrontation
2. Lost in the darkness
3. Alive

Notre Dme de Paris 中

1. 대성당들의 시대
2. Belle

여름노래모음



8월 18일 음악회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심장**이 위험하다...

좌석 전석 7천원

할인 회원 (30%) 단체 (20%)

관람등급 초등학교생 이상



>>> 지휘 / 민 인 기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전공
- New York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합창지휘 박사
- 프리마돈나 앙상블, 광주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청주시립합창단, 당진시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 등 객원지휘
- 북미음악대학협의회 미주 한국일보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휘자"
-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역임
-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 연출 / 박 태 환

- 연극<행복한 가족>의 50여 작품 출연
- 연극 <두동 이야기>의 30여 작품 외 오페라, 무용, 악극 등 다수 연출
- 현) 극단 세소레 대표, 연출가, 배우

2016. 07. 28[Thu] PM 8: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부산가야금연주단, 박미서, 서순화 등
지역 예술인들의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와

흥겨운 타악 퍼포먼스가
한데 어우러지는
전통연희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우리소리 판타지

입장료 VIP석 20,000원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회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예매 및 문의 <http://www.uccac.or.kr> 052)275-96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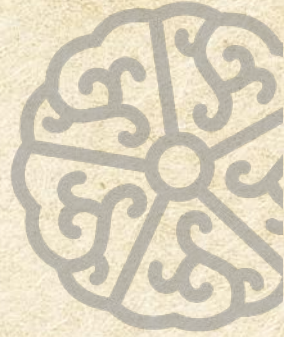
예술감독 / 김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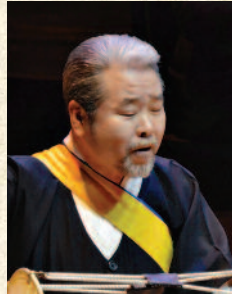
지휘 / 이경섭



지휘 / 박상욱



진행 / 남상일, 박애리



특별출연 / 김덕수



협연 / 부산가야금연주단



협연 / 임세란



강성주



김선희



문순조



우정출연 / 박미서, 서순화

한국 국악계 전성기를 이끄는

남상일 & 박애리의

입담 넘치는 진행

흥겨운 사물놀이로

국악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

김덕수 명인 특별출연!!

울산시립무용단 『우리소리 판타지』는 다양하고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국악 한미당으로 매년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대이다.

왕성한 방송활동으로 우리 소리의 르네상스를 불러 온 남상일, 박애리의 입담 넘치는 진행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여수시립 국악단 이경섭 지휘자가 이끄는 국악관현악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시아 뱃노래〉’와 사물놀이로 흥겨운 우리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김덕수 명인과 울산시립무용단 국악연주단의 콜라보가 환상적인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심장을 고동치게 할 대규모 타악퍼포먼스 ‘타’ 등 다양한 작품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박미서, 서순화 등 지역 소리꾼들과 부산가야금 연주단도 차례로 무대에 올라 경기민요와 창작국악 ‘브랜뉴’, ‘싱싱싱’ 등 참신하고 수준높은 연주로 객석의 흥을 돋운다.



PROGRAM

국악관현악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시아 뱃노래』 박범훈곡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노래 : 박미서, 서순화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박범훈곡	협연 : 김덕수, 강성주, 김선희, 문순조
거문고 협주곡	『강상유월』 오혁곡	협연 : 임세란
노래곡	『상사몽, 숙대머리』	노래 : 박애리
가야금 협주곡	『브랜뉴, 상상싱』	협연 : 부산가야금연주단
노래곡	『장타령』	노래 : 남상일
타악 협주곡	『타』 이경섭곡	협연 : 강성주, 김선희

* 곡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Verona

김진홍의 Italia 통신

VERONA

베로나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방의 도시로 돌로미티 산맥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아디제강이 도시 중심을 지나간다. 12~13세기에는 롬바르디아의 지배하에 번영하였으며, 13~14세기에는 겔프당과 기벨린당 사이의 투쟁이 있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는 이 투쟁을 배경으로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1562년에 출간된 아서 브룩의 서사시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러 등장 인물과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셰익스피어의 독창적인 창작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은 원수지간이던 베로나의 두 가문 몬태규가와 캐플릿가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캐플릿가의 파티에 몰래 참석한 몬태규가의 로미오는 캐플릿가의 아름다운 줄리엣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부모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이 결혼이 두 가문의 화해를 가져다 줄 거라 믿은 신부는 그들을 축복한다. 그러나 로미오는 그의 친구 머큐쇼를 죽인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에게 결투를 신청해 그를 죽이게 된다. 이 일로 인해

로미오는 베로나 공작에 의해 베로나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줄리엣은 그녀를 좋은 가문에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부모를 피해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수면제를 먹고 죽은 것처럼 가장한다.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미오는 줄리엣의 무덤에 찾아와 그녀의 죽음에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숨이 끊어진 로미오를 발견하고 자신도

Arena





Casa di Giulietta

Casa di Giulietta

함께 자살한다. 이같이 원수지간 자식들의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자, 몬테규가와 캐플릿가 두 가문은 베로나 군주의 개입하에 뿌리 깊었던 원한을 지우고 화해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는 로맨틱한 도시 베로나 곳곳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명소들로 가득 꾸며져 있다. 베로나의 시내 중심 마찌니 거리(Via Giuseppe Mazzini)를 지나 에르베 광장(Piazza delle Erbe)의 우측 편에는 줄리엣의 집(Casa di Giulietta)이 있다. 이곳은 관광객들로 항상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

입구 외벽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커플들이 여러 가지 색의 매직으로, 껌 또는 포스트잇으로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길 기원하는 낙서들로 가득 차 있다. 입구를 지나면 작은 정원이 나오는데 그 안쪽에 슬픈 표정의 줄리엣 동상이 서 있다. 줄리엣 동상의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때문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줄리엣 동상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념 사진을 찍는다. 이로 인해 동상의 오른쪽 가슴 주변의 색은 밝게 변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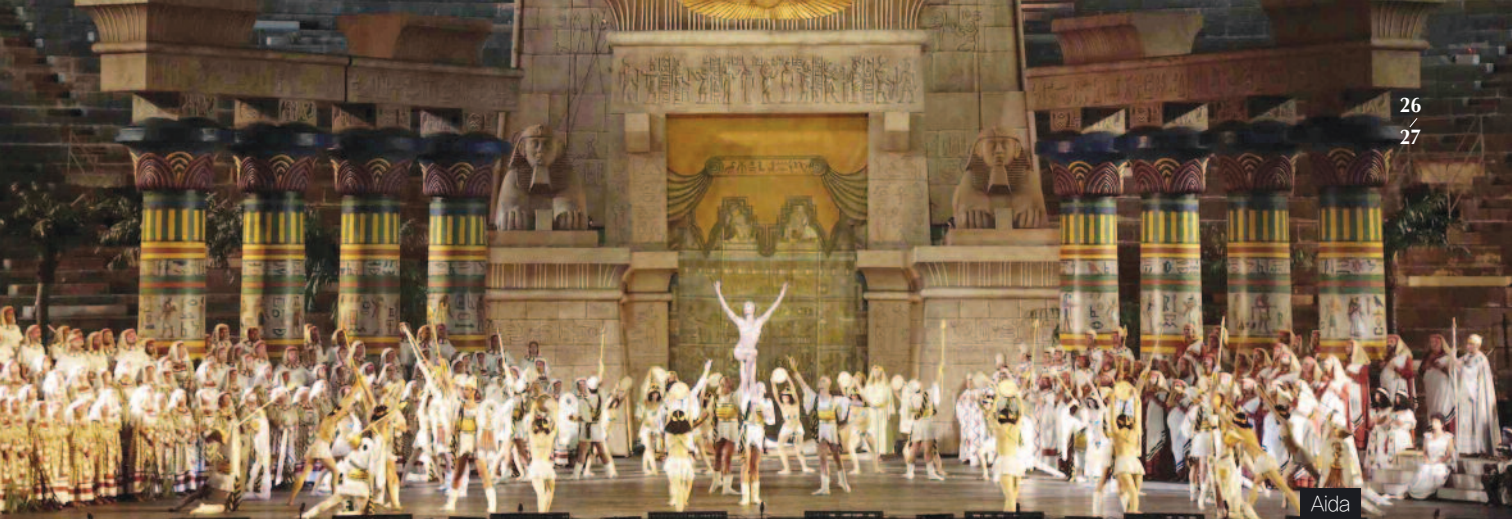
동상의 오른쪽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속삭였던 발코니가 있는데 지금도 줄리엣이 발코니로 나올 것 같은 로맨틱한 모습이다.

줄리에타의 묘는 아레나 동남쪽 아디제 강가에 있는 박물관(Museo degli Affreschi 'G.B. Cavalcaselle' alla tomba di Giulietta)에 있다. 사실은 베로나에 있는 줄리엣의 집이 캐플릿가의 집으로는 추정되나 실제로 줄리엣이 살았던 집은 아니라는 것이다. 베로나 시에서 줄리엣의 집과 발코니를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엣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여 매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줄리엣 앞으로 쓴 편지가 도착한다. 일년에 100만통이 넘는 편지가 도착하며 베로나 시는 각국 언어로 답장을 보낸다고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함께 아레나 야외 극장은 베로나의 상징이다. 베로나의 아레나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과 나폴리 근처 카푸아에 있는 경기장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 경기장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 시기였던 서기 1세기에 건축되었다. 아레나는 객석에서 중앙을 볼 수 있게 해놓은 원형 경기장을 뜻한다. 라틴어 <아레나>(harena)는 원래 모래라는 뜻으로 검투사들이 싸우면서 흘리는 피를 흡수하기 좋도록 모래를 깔아놓는 데에서 지금의 뜻으로 발전했다. 타원형 경기장 내부의 긴지름은



Arena



Aida

75.68m, 짧은지름은 44.43m이고 원래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로마 건축술이 만들어낸 걸작이며 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한 규모이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사형장, 기사들의 결투장소 등으로 이용되다가, 16세기 말부터는 권력자들의 행사장으로 이용되었다. 18세기부터는 투우장과 연극 공연장 등으로 이용되었고, 19세기에 뛰어난 음향 효과가 알려지면서 오페라 공연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매년 여름, 6월부터 9월까지 아레나에서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축제〉(Arena di Verona Festival)가 열린다. 1913년 8월 10일 베로나 출신의 테너 제나텔로(Giovanni Zenatello)는 오페라 단장 오토네 로바토(Ottone Rovato)와 함께 이탈리아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이다〉(Aida) 공연을 올렸다. 당시 공연 지휘는 거장 세라핀(Tullio Serafin)이 지휘를 하였으며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와 피에트로 마스카니(Pietro Mascagni)도 관람하였다.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축제를 통해 많은 성악가들이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쌓았다. 1929년에는 테너 베니아미노 질리(Beniamino Gigli)가 프리드리히 플로토(Friedrich Flotow)의 〈마르타〉(Marta)에 출연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도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정기적으로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축제에서 공연했다. 이 오페라 축제는 3만여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달빛과 별빛 조명 아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만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음악 애호가들이 매년 여름 베로나로 방문을 한다.

축제 기간에는 보통 5~6편의 오페라가 50회 이상 공연되는데, 공연은 전통적으로 밤 9시경에 시작된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관객들이 준비해온 촛불을 들고 지휘자와 공연자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옛날에는 조명이 없어 공연 전 촛불을 밝히던 것이 유래라고 한다. 야외 공연장에 켜진 수많은 촛불은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축제를 대표하는 광경으로 장관을 이룬다.

2016년 시즌은 5개의 오페라가 올려지는데 비제의 〈카르멘〉, 베르디의 〈아이다〉(Aida),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La Traviata), 푸치니의 〈투란도트〉(Turandot),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Il Trovatore)이다. 두 달 동안 5개의 오페라 공연은 8월 28일 베르디의 〈아이다〉의 공연으로 시즌을 마친다. 그리고 오페라 공연 외에 세계적인 이탈리아 출신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와 친구들〉(Roberto Bolle and Friends)이란 제목으로 발레 공연이 7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지중해를 여행하는 크루즈 배 선상 위에서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팀의 오페라 갈라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글/ 김진홍



Giulietta



모차르트 생가

음악의 도시,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호엔잘츠부르크 성채에서 내려다 본 잘츠부르크

뜨거운 여름이군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여름은 유럽 예술축제의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 전 신문과 잡지에 실린 유럽 음악축제 기사를 스크랩 하며 유럽공연여행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문득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 앞서 가장 가고 싶었던 유럽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요. 모차르트를 좋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직 여행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또는 언젠가 유럽공연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잘츠부르크 어떨까요?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

독일어로 ‘소금의 성’이라는 뜻의 잘츠부르크는 과거 이 지방에서 소금이 많이 생산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구 15만 명의 이 작은 도시에는 해마다 6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스트리아의 자랑이면서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아마테우스 모차르트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잘츠부르크는 잘차흐 강을 사이에 두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마주 보고 있는데요. 구시가지의 역사 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아마도 잘츠부르크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구시가지 게트라이데 거리의 모차르트 생가를 시작으로 관광을 시작할 겁니다. 노란색 외벽이 모차르트와 잘 어울리는 이 집에서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태어나 17살이 되던 해까지 살았는데요. 현재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1층부터 4층까지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과 건반 악기, 악보, 편지, 가족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가 인근에 있는 대성당은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고 1779년부터는 오르간 주자를 맡았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6천 개의 파이프 오르간 역시 이 성당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신시가지에 가면 1773년부터 1787년까지 모차르트 일가가 살았던 ‘모차르트 집’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1781년까지 이곳에 머물며 많은 작품을 썼고, 그의 아버지는 이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잘츠부르크 음악제

잘츠부르크는 해마다 7월 말부터 8월까지 약 6주간 열리는 <잘츠부르크 음악제>로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을 유혹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를 기념해 지난 1920년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극작가 호프만슈탈이 처음 음악제를 시작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중단됐다가 1945년부터 재개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브루노 발터, 카를 뢰름은 물론 잘츠부르크가 고향이기도 한 카라얀이 30년 이상 음악제 총감독을 맡으며 더욱 유명해졌죠. 또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꾸준히 호스트 오케스트라로 참여하며 축제의 수준을 높게 유지해 왔습니다. 음악제는 축제 극장을 중심으로 주립극장과 미라벨 궁전 등 도시 전역에서 진행되는데요.

지난 1960년 카라얀에 의해 세워진 축제 극장은 호프슈탈가세를 따라 이어지는 225미터에 이르는 복합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대극장과 소극장, 바위산을 뚫어 만든 펠젠라이트솔레 극장 등 3개의 극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의 공연이 마련되는 만큼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입장권을 구하기는 아주 힘든데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11월부터 다음해 페스티벌 입장권을 발매하기 시작하는데, 인기 있는 공연은 대부분 1월 초에는 매진됩니다. 현지에서는 카라얀 플라츠에 있는 공식 티켓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경우에 말이죠.



축제극장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와 함께 잘츠부르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65년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 영화는 인간애를 다룬 스토리뿐 아니라 영화 전체에 흐르는 음악, 그리고 배경이 된 잘츠부르크와 인근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첫 장면은 잘츠부르크 인근의 잘츠카머구트이고요. 마리아가 있었던 수녀원은 논베르크 수녀원, 트라프 대령의 저택과 보트놀이를 하던 못이 레오폴츠크론 성, ‘도레미 송’을 부를 때 나오는 모차르트 다리와 미라벨 정원, 결혼식이 거행된 몬트체 교회, ‘에델바이스’를 부르던 축제 극장, 그밖에 레지넨츠 광장과 말이 물을 마시던 곳 등 많은 촬영이 잘츠부르크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에 가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를 돌아보는 관광버스가 있기도 합니다.

농처서는 안 될 아름다운 마을 할슈타트(Hallstatt)

앞서 소개한 잘츠카머구트는 잘츠부르크 동쪽에 펼쳐진 산악지대로 곳곳에 산과 호수가 흩어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금산업으로 번창했던 곳이지만 요즘은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할슈타트일 텐데요. 4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할슈타트는 호수로 둘러싸인 평화롭고 아기자기한 마을로,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광산을 둘러볼 수 있고, 직접 10km 길이의 광산 내부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암벽에 줄지어 들어선 아기자기한 집들을 구경하거나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노천카페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성당이나 박물관 등에 조성된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회를 즐기는 것도 할슈타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잘츠부르크 중앙역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유람선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면 할슈타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글/ 윤하정

아름다운 마을 할슈타트



부세의 중국풍 춤

舞

도판 1. 프랑수아 부세, 《중국풍의 춤(La Dance chinoise)》,
1742년. 캔버스에 유채, 300 x 570 cm, 브장송 미술관.

근래 한국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다양해서 K-Pop이라 불리는 대중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화장품, 게임, 웹툰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구요. 이런 전 세계적 문화 유행 현상은 사실 역사가 꽤 깊은 일입니다. 가령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동안은 미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전 19세기 후반에는 ‘자포니즘(japonisme)’이라고 하여 일본풍이 유행했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그 영향이 종종 드러나지요. 하지만 이런 이국취미의 시작은 동방(오리엔트)의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뜻하는 ‘오리엔탈리즘’ 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중국이 이런 유행의 중심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구에 중국이 알려진 것은 사실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다녀온 이래 사람들은 중국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런 저런 상상이 덧붙여지면서 환상 속의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중국과 유럽이 직접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상상 속의 나라였던 중국은 보다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향료와 비단, 모피, 상아 같은 사치품이 당시 상류층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그 중 가장 인기 있던 것은 중국의 자기였습니다. 아직 기술상의 문제로 투박한 도기 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유럽 사회에서, 얇고 투명하게 흰빛을 내는 청화 백자는 경이로웠을 겁니다.

중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China를 소문자로 china라고 쓰면 도자기라는 뜻이 되는데, 그 정도로 중국산 도자기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참고로 japan은 칠기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만든 옷 칠기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중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시누아즈리(chinoiserie)’라고 하는 중국 취미의 유행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로코코 양식이 유행했

도판 1





도판 2

는데, 중국의 아기자기한 모습과 이국적인 문양 등이 여기에 잘 어울렸던 게지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뒤섞여 중국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당시 동양의 각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일본과 중국의 물품들이 인도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었기에 그 경계가 불분명한 탓도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예술가들의 영감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멋진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시누아즈리는 주로 실내 인테리어나 가구, 장식용품, 도자기, 정원의 점경물 등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프랑수아 부세(Francois Boucher) 또한 중국풍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로코코 회화의 단골 주제 중에는 ‘페트 갈랑트(fetes galantes)’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즐거운 연회’ 정도 되는데, 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야외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선남선녀들이 우아하게 여흥을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부세는 페트 갈랑트에도 시누아즈리를 가미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중국풍의 춤>(도판 1)은 나무들이 무성한 정원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관료, 혹은 귀족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높은 좌대에 앉아 사람들이 펼치는 연회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의복과 관모, 손에 들고 있는 부채는 그가 높은 신분의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악기들은 실제의 중국 악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부세는 아마 당시 중국에서 수입된 도자기에 그려진 문양을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대어섯 명의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손을 잡고 다리를 들며 한참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양적 외모와 독특한 복장은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매우 이국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부세의 중국풍 페트 갈랑트 그림은 그 자체로도 인기 있었는데,

사실 이 그림들은 태피스트리를 만들기 위한 바탕 그림인 카툰이었습니다(도판 2). 프랑스의 보베와 오비송에 있는 왕립 제작소에서는 부세의 중국풍 그림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점의 태피스트리를 제작했습니다(도판 3). 이는 왕실과 귀족들의 실내 장식품이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외교 선물 용으로 더 쓰임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의 중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지만,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정확한 묘사보다는 분위기가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국적인 풍광 속에서 인형 같이 아기자기한 사람들이 낯시를 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니까요.

19세기 초 자포니즘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시누아즈리는 꽤 오래 유행했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가 아마 이런 시누아즈리를 화려하게 마무리 지은 작품이 아닐까요.

글/ 황주영



도판 3

도판 2. 부세, <황제 알현(L'Audience de l'empereur de Chine)>, 1742년. 캔버스에 유채, 40 x 64 cm, 브장송 미술관.

도판 3. 부세, <황제 알현>의 태피스트리. 울과 실크, 400 x 508 cm, 루브르 박물관.

가면무도회

Un ballo in maschera

1



실존 인물 구스타보 3세

18세기 스웨덴의 계몽 전제군주 구스타프3세(Gustav III, 1746~1792)가 요한 앙카르스트롬 백작에게 암살당한 역사적인 사건은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구스타프 3세의 정치에 대한 불만과 기족들의 내부 원한 관계 등으로 불만을 품은 일당들의 대표로 전 근위대 소속 대위 앙카르스트롬이 1792년 3월 13일 왕궁의 가면 무도회장에서 왕에게 총상을 입혔다.

범인과 그 일당들은 곧 체포되었고 국왕은 오페라에서와는 달리 바로 죽지는 않았고 총상으로 인한 감염이 원인이 되어 2주 후에 세상을 떠난다. 구스타프 3세는 스웨덴 문화예술에 큰 공헌을 한 군주. 스웨덴 왕립오페라단과 발레단을 설립하였고 그 자신도 극작가로 활발히 활동한 군주이다.

오페라에서 극적인 모티브를 제공하는 점쟁이 울리카는 실존인물로서 그 당시 널리 알려진 무당이었고 실제로도 구스타프 3세의 암살을 수년 전에 내다보았다고 한다. 프랑스의

2



문필가 외젠 스크리베는 이 흥미진진한 실화를 바탕으로 앙카르스트롬의 아내와 국왕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허구로 가미하여 희곡을 집필하였다. 스크리베의 대본으로 다니엘 오베르(‘가면무도회’의 구스타프 3세, 1833)와 사베리오 메르카단테(‘통치 Il reggente’, 1843) 등이 베르디보다 앞서 오페라를 작곡하여 초연 당시에는 꽤 인기를 끌었다.

당국의 검열

베르디에게도 이 소재는 무척 매력적이어서 1857년 가을 나폴리 산 카를로 오페라극장에서 작품을 의뢰받았을 때 이 내용을 소재로 결정하였다. 베르디는 스크리베의 희곡을 바탕으로 대본가 안토니오 솜마에게 ‘애정과 우정을 둘러싼 갈등의 드라마’ 대본은 집필해달라고 하여 2개월 만에 작곡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3세 치하의 나폴리에서 독립운동이 격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검열당국이 왕의 암살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허락할 리가 없었다. 메르카단테도 이 오페라의 배경을 스코틀랜드로 바꾸었다. 게다가 파리에서 이탈리아의 독립투사 올시니에 의한 나폴레옹3세 암살 미수사건까지 일어나 검열이 더욱 강화되어 나폴리에서 공연을 포기해야만 했다.

초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두 개의 판본

다음 해 로마 아폴로극장에서 초연을 강행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공연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베르디는 하는 수 없이 제목을 ‘구스타보 3세’에서 ‘가면무도회’로 바꾸고, 오페라 무대를 스웨덴 스톡홀름 궁정에서 17세기 영국 식민치하의 보스턴으로, 주인공도 구스타프3세 국왕을 보스턴 총독 리카르도로 바꾸어 2월 17일 초연을 할 수 있었다.

음악 및 내용의 특징

사실 보스턴에는 ‘총독’이라는 직위도 없는 터무니 없는 설정이었다. 이런 연유로 ‘가면무도회’는 두 개의 판본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스웨덴 스톡홀름 궁정을 배경으로 한 ‘스톡홀름 판’, 또 다른 하나는 검열 때문에 배경을 바꾼 보스턴 판이다. 오페라 ‘가면무도회’는 내용면에서도 흥미를 자극하지만 오페라

특징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정쟁보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극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또다른 주요한 점은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 비극오페라의 여주인공들은 남자 주인공을 위한 희생, 헌신, 자결 등으로 끝을 맺었으나 이 작품은 베르디 오페라로서는 처음으로 여주인공이 아닌 남주인공의 희생으로 끝을 맺는다. 대부분 주체할수 없는 혈기와 생각의 짧음과 질투심으로 결국 여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철없고 사려 깊지 못한 테너 남주인공의 이미지가 ‘가면무도회’에서 비로소 뒤바뀌게 된다. 구스타프 3세(리카르도)는 테너 남주인공으로서의 처음으로 연인을 진심으로 위하며 서로의 화합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폭넓고 이해심 많은 군주로 그려진다.

전체적인 음악 또한 뛰어나다. 자제 해왔던 서로의 사랑을 격렬히 표현하는 남녀주인공의 이중창, 배신당한 레나토가 행복하던 과거의 회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강렬한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는 노래, 레나토와 암살자들의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발랄하고 순진무구한 10대 시동 오스카의 대비되는 노래, 점쟁이 올리카의 음험하고도 소름끼치는 초현실세계의 묘사등 어떤 오페라보다 독창적인 기법이 뛰어나다. 원작으로 처음 공연은 1935년 스웨덴에서 이루어졌다.

글/ 송종건

주요 아리아

- 지옥의 왕이여, 서두르소서 Re dell'abisso, affrettati (1막2장, 올리카)
- 내 손으로 약초를 뜯어 Ma dall'arido stelo divulsa (2막, 아멜리아)
- 너였구나, 내 영혼을 더럽힌 자가 Eri tu che macchiavi quell'anima (3막1장, 레나토)
- 하지만 그대를 영원히 잃는다 해도 Ma se m'e forza perdetti (3막2장, 구스타보)



1/〈가면무도회〉 사진출처: Fondazione Teatro Lirico
2/〈가면무도회〉 사진출처: 파르마 오페라하우스
3/〈가면무도회〉 사진출처: Dorset-Opera

김용진의

Piano Forte

지중해의 섬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Music Travel

신비한 매력을 간직한 지중해의 섬

올해도 어김없이 바캉스의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날의 아스팔트를 떠나 시원하고 낭만이 있는 바다나 계곡으로 향할 날이 다가온 것이다. 특히 요즘은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저가 항공권과 호텔가격 비교 앱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 가지 못할 곳이 없어졌다.

각자의 취향대로 여행지를 선택하겠지만, 나의 취향은 바로 지중해의 섬이다. 섬의 매력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 미지의 신비로움이 간직되어 있을 것 같은 환상에서 비롯된다.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해변, 하지만 지중해 기후의 특성상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 아쉽게도 나는 아직 가본 적이 없다. 꼭 가보고 싶은 그곳. 그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드뷔시의 피아노 곡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카프리 섬

드뷔시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 받는 피아노 작품이 각각 열 두 곡씩으로 이루어진 2권의 전주곡집이다. 그 중에서도 1권의 5번 곡이 바로 '아나카프리의 언덕'이다. 3분이 조금 넘는 짧은 곡이지만 시원한 바닷

바람과 불쾌하지 않은 끈적임(?) 그리고 나른한 오후의 풍경을 담고 있다.

처음 시작은 아련히, 멀리서 들리는 작은 종소리를 연상케 하는 5개의

음(5음 음계)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경쾌하고 발랄한 섬에서의

하루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후에 반복적으로나오는

왼손은 일렁이는 바다를



아나카프리



표현하며, 그 위에 펼쳐지는 오른손의 멜로디는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중간 부분에는 섬에서 불려지는 대중적인 선율(아마도 섬 사람들이 일하면서 흥얼대는 멜로디)을 왼손의 저음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섬의 오후의 나른함을 표현하며 마무리된다.

이탈리아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한 카프리 섬의 북쪽 해안가 아나카프리. 잠시 눈을 감고 드뷔시 특유의 음색으로 반짝이는 아나카프리의 정취를 느껴보자.

키테라 섬

다소 낯설게 들리는 키테라 섬은 그리스의 크레타 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섬이다. 키테라 섬은 고대 그리스 시대



키테라 섬으로의 출항-비너스가 탄생한 곳

부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섬, 바로 비너스의 섬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너스의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혹은 축복을 받고 싶은 연인

들이 자주 찾았다는 섬으로 전해진다. 이 섬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화가 앙투안 와토는 그것을 '키테라섬의 순례'라는 그림으로 남겼다. 드뷔시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피아노곡을 작곡한다.

와토의 그림은 젊은 남녀들이 영원한 젊음과 사랑의 섬 키테라로 떠나는 들뜬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데, 드뷔시는 이러한 느낌을 담아 자신의 곡에 '기쁨의 섬'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곡은 연주하기 매우 어려운 곡이다'라고 드뷔시 본인이 말할 정도로 피아노의 고난도 기교가 필요한 곡이기도 하다.

처음 시작은 사랑의 섬, 기쁨의 섬으로 떠나자고 마법을 거는 듯한 트릴(두 개의 음을 연속해서 번갈아 연주하는 기법)로 시작한다. 그리고 출항이다. 출렁이는 파도,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 왼손에서 들리는 파도의 울렁거림은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이국적인 멜로디를 더욱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상을 품도록 만든다. 이런 설레고 떨리는 마음은 어느덧 안정을 얻게 되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화음이 그 느낌을 잘 표현한다.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한 환희에 찬 여행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팡파르 소리를 듣는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듯 울려 퍼지는 팡파르는 마침내 찾은 사랑의 환희를 격정적으로 표현한다. 기쁨의 축제가 최고조로 올라갈 때쯤, 이 환상의 섬에서의 하루는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저문다.

키테라 섬을 배경으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젊은 남녀의 모습과 내면이 마치 한 편의 단편영화처럼 극적으로 펼쳐진다. 그들의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의 날개를 펴고 떠나보자.

음에 색을 입히다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 드뷔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의 음악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이는 음악'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새로운 음계와 리듬 그리고 페달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음에 색을 입혔던 작곡가이다.



드뷔시

이번 여름에 프랑스로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파리에서 지하철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생 제르망 앙 레이(Saint Germain En Laye)에 한번 가 보시길 권한다. 루이 14세가 머물렀던 멋진 성도 있고 드뷔시의 생가도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드뷔시 생가에서 열리는 음악회도 관람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 어쩔 도리 없이 집에 있어야 한다면, 지금 소개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집에서 대리 만족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단, 선풍기는 가장 센 바람으로.

글/ 김용진

Performances

7·8월 공연가이드

오페라 “바람난 박사장”

공연정보 7. 2(토) 19:00,
7. 3(일) 15:00,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싱어즈소사이어티
입 장 료 V석: 10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공연개요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를 바탕으로 울산시의 실정에 맞게 각색한 오페라이다. 바람기 있는 돈 조반니의 행각을 현대로 가져와 재미있는 대사와 음악을 한국말로 각색해 보았다.

더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

공연정보 7. 5(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더스트링스챔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더 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로 주변에서 접하는 유명한 곡들을 오케스트라 편곡에 맞추어 연주를 한다.

창작소리극 심청 꽃의길

공연정보 7. 7(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국악동인 휴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희로애락이 담긴 판소리 심청가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악·가·무가 어루러지는 무대를 통하여 국악의 예술성,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제20회 창작동요발표회

공연정보 7. 8(금)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동요사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의 아동문학과 전국 유명 아동문학가의 좋은 글을 바탕으로 울산의 동요 작곡가 및 전국의 유명 작곡가가 새로이 곡을 붙여 만든 울산창작동요 30여곡을 울산 어린이들을 통해 발표

제19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공연정보 7. 9(토)~7. 10(일) 10:00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국악협회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통음악의 보급발전/국악인에게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제공/ 축제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점/
울산광역시장상 5점/
국립국악원상 외 기타 74점

제3회 사)아리랑 보존회 울산지회 정기공연

공연정보 7. 14(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아리랑보존회 울산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서도반메기,비나리/경개2잡가중 달거리/방아타령,찾은방아타령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영천 아리랑/아리랑신곡(장생포고래 아리랑+개운포처용아리랑) 처용무단원

제7회 울산 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7. 15(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심포닉밴드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심포닉밴드가 추구하는 고난도의 기교로 전문성을 보여 주기보다는 세간에 잘 알려진 음악을 통하여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 울산 시민 정서 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

제20회 2016난리굿(그곳에가면)

공연정보 7. 16(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퓨전국악단 망개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0주년을 기념하는 망개의 변천사를 알리는 영상으로 시작하여 옛 장생포 마을의 생동감 있었던 모습, 고래가 사라짐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사라져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다시금 고래들로 인해 문화관광의 중심이 되어 또 다른 부흥을 이룬 현재 모습들을 음악과 함께 랩, 그리고 무용, B-Boy가 가미된 형태의 종합예술로 보여준다.

제3회 루체현악앙상블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7. 17(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루체현악앙상블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13명으로 구성된 현악앙상블팀의 클래식 공연

Performances

7·8월 공연가이드

노사 한마음 안전 페스티벌

공연정보 7. 19(화)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한국경제신문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문화 행사를 통한 노사 및 시민 안전문화 공감의 장 마련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서곡 및 교향곡, 기악곡, 성악곡 등 연주

김미자의 전통춤 “춤 맥을 잇다”

공연정보 7. 21(목)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김미자무용단
입 장 료 R석: 10,000원
공연개요 남도 무무의 계통으로, 이른바 살을 푼다. 부드럽고 가벼운 흰 수건을 들고 독특한 살푸리 장단에 맞춰 수건을 공간에 휘날리며 추는데 정,중,동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무작으로 구성된 이 척류 살풀이 춤을 시작으로 이 척류 산조, 태평무, 설장구춤, 입춤, 추야월, 부채춤으로 구성

시크릿 주주

공연정보 7. 23(토) 11:00, 14:00, 16:00
 7. 24(일) 11:00, 14:00, 16:00
공연주최 소공연장
입 장 료 우리두리 R석: 30,000원
공연개요 시크릿주주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음악이 함께하는 댄스 파티

뮤지컬 “정글에서 살아남기”(울산)

공연정보 8. 6(토) 11:00, 14:00, 16:00
 8. 7(일) 11:00, 14:00, 16:00
공연주최 대공연장
입 장 료 ubc울산방송 V석: 55,000원, R석: 44,000원
 S석: 33,000원
공연개요 환상적인 레이저쇼와 마술 그리고 플라잉의 만남, 웅장하고 화려한 리얼 정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무대연출을 통한 정글 동물들이 눈앞에서 살아숨쉬듯 생동감을 불어넣는 공연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공연정보 8. 9(화) 20:00 소공연장
 8. 10(수) 15:00, 20:00
공연주최 울산현대오페라단
입 장 료 R석: 20,000원
공연개요 연극가 오페라가 만나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오페라의 무거운 장벽을 허물고 어린이와 어른 온가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6 내드름연희단 정기공연 “호흡” 긴장이완 더 오리지널

공연정보 8. 10(수)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내드름연희단
입 장 료 R석: 10,000원
공연개요 문물을 시작으로 비나리, 삼도 설창고, 삼도농악, 흥부가 '박타는 대목', 사물판굿, 뒤풀이를 관객과 함께 신명을 풀다

뽀로로와 노래해요

공연정보 8. 12(금) 11:00, 14:00, 16:30
 8. 13(토) 11:00, 14:00, 16:30
 8. 14(일) 11:00, 14:00, 16:30
공연주최 소공연장
입 장 료 좋은날 음악기획 R석: 30,000원
공연개요 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노래, 댄스를 비중확대/가속 모두가 함께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부각. 아이들이 집중하고 감성을 자극하게 될 단순하지만 세밀하게 짜여진 스토리

선물

공연정보 8. 16(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서울 내셔널 심포니
입 장 료 R석: 20,000원
공연개요 “아프리카에 우물” 자선 음악회

제16회 임영진판소리국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순수한 사랑의 화신 “열녀 춘향”(창극)

공연정보 8. 17(수)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임영진판소리국악연구회
입 장 료 R석: 20,000원, S석: 10,000원
공연개요 '창극' 국악공연을 통해 울산 시민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신명이 흘러넘치는 창극 '열녀 춘향'으로 울산 시민들에게는 힐링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전문 국악인들에게는 예술성을 극대화 가.무.락의 한판 놀음

Performances

7·8월 공연가이드

가족뮤지컬 알라딘 공연

공연정보 8. 20(토) 11:00, 14:00, 16:00
8. 21(일) 11:00, 14: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예일
입 장 료 R석: 30,000원
공연개요 알라딘은 총3막7장으로 구성된 장편뮤지컬이다. 아라비안나이트 설화를 기초로 만든 것인데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모체로 삼았다.

전통연희 난장 不 狂 不 及 3(불광불급)

공연정보 8. 24(수) 16:00,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풍물예술단 버숨새
입 장 료 R석: 20,000원
공연개요 전통리듬을 바탕에 두고,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시대의 아이콘 등, 다양한 문화코드를 주제로 설정, 극적인요소를 가미한 전통연희 이야기 난장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새로운 공연양식으로 누구나 즐기고, 공감 할 수 있는 작품

맞이와 풀이

공연정보 8. 25(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소리랑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소리랑 정기공연 '맞이와 풀이'는 민속악 중 무속음악에 해당하는 음악들을 선별, 재구성하여 준비한 무대가 될 것이다. 호남지역의 진도 씻김굿, 경기지역의 경기도당굿, 영남지역의 남해안 별신굿, 그리고 대구지역의 달구벌 입춤까지 지역의 음악을 토대로 오랜시간을 통해 재구성하여 지역적인 음악적 특징을 비교해 보고 들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국악연주단 민들레 제10회 정기공연

공연정보 8. 27(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국악연주단 민들레
입 장 료 R석: 10,000원
공연개요 1부는 중주곡, 관현악곡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창단부터 10년 동안에 만들어진 민들레 위촉곡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2부는 밴드 세션으로 새롭게 작곡되는 퓨전 국악 2016 국악연주단 민들레 위촉곡을 중심으로 기획한 공연이다.

창작뮤지컬 “외솔 거례의 등불 최현배”

공연정보 8. 27(토) 19:30,
8. 28(일)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외솔뮤지컬컴퍼니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이 낳은 위대한 인물이자 한글 학자로 일생을 마친 애국 애족사상을 드날린 선각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위대한 겨레사랑의 삶과 철학을 감동의 대 서사 창작 뮤지컬로 승화시킨 공연

울산 콘서트콰이어 제6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8. 30(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콘서트콰이어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단순한 합창이 아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아카펠라위주의 합창을 선보인다.

명작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공연정보 8. 31(수) 10:15, 11:2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남비곰비
입 장 료 R석: 15,000원
공연개요 “브레멘 음악대”는 명작을 각색한 작품으로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뚜렷한 감동이 있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하였다.

Exhibitions

7·8월 전시가이드

제13회 울산 전국서예문인화대전

전시기간 7. 6(수)~7. 11(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화예술진흥회
 전시내용 입상작품 전시를 통하여 울산 서예 문인화 수준 향상 대상 1명, 최우수 2명, 특선, 입선 문화상 2명, 초대작가 (한글, 한문, 문인화)작품 총 340여점 전시

제9회 먹물향기전

전시기간 7. 13(수)~7.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협 서예분과
 전시내용 울산인, 바람의 노래전, 울산을 찾아 노래한 시인, 묵객의 시와 노래, 명가의 가훈 등을 서예술로 녹여 대작위주의 서예작품과 7월이라는 계절에 맞추어 부채작품을 통하여 울산 정신과 혼을 재조명하는 작품 총 63여점 전시

제12회 안남용 개인전

전시기간 7. 13(수)~7.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안남용)
 전시내용 전시회를 통해서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쉽게 이해하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 16개국에서 촬영한 사진 속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 총 25여점 전시

제44회 울산서도회 회원전

전시기간 7. 13(수)~7.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도회
 전시내용 울산 서예술의 발전을 위해 1972년 창립된 울산서도회는 울산의 서예단체 중 가장 오래된 전통성이 있는 단체로 한문, 한글, 문인화 작품 총 60여점 전시

제20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전시기간 7. 13(수)~7.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경상일보
 전시내용 지난 1년 동안 울산지역의 사건·사고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장면 등 경상일보 지면을 통해 독자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은 사진작품 총 60여점 전시

제20회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전시기간 7. 20(수)~7.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1,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전시내용 신진작가 발굴 및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진대전을 개최하여 입상한 작품과 초대, 추천 작가 등 사진작품 총 120여점 전시

울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전시기간 7. 20(수)~7.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환경미술협회
 전시내용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문인화, 서예, 사진, 공예, 판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120여점 전시

제21회 한·중 미술교류전

전시기간 7. 27(수)~8. 1(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한·중 회원 상호간 문화교류의 장 마련 및 저변 확대와 불거리를 제공코자 선별한 대표작품 총 100여점 전시

남송녀 개인전

전시기간 8. 3(수)~8. 8(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남송녀)
 전시내용 산을 통해 삶의 무게와 축적된 삶의 흔적을 나타내고 물을 통해 현재의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은유하여 시각화한 작품 총 50여점 전시

Exhibitions

7·8월 전시가이드

제9회 반구대전

전시기간 8. 3(수)~8. 8(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각협회
 전시내용 대곡천 구곡, 새김의 재발견으로 일대에 새겨진 선사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 새김을 탐방하여 울산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현대서각 작품 총 60여점 전시

색이야기 정회전

전시기간 8. 3(수)~8. 8(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색이야기
 전시내용 북구 미술인들의 예술을 통한 상호 소통과 취미활동 강화 및 정서함양에 목적을 둔 회원들의 서양화 작품 총 50여점 전시

장은경 개인전

전시기간 8. 3(수)~8. 8(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장은경)
 전시내용 인간의 삶에 있어 누구나 느끼는 슬픔, 고통, 번뇌, 상처, 사랑, 기쁨 등 감성적인 카테고리를 모티브로 자연과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는 소재로 한 작품 총 30여점 전시

제20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전시기간 8. 10(수)~8. 15(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예협회
 전시내용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과 서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한글, 한문, 문인화, 전각, 서각 등 다양한 서예작품을 공모하여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 총 300여점 전시

제11회 연목회전

전시기간 8. 17(수)~8. 22(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연목회
 전시내용 회원 전을 통하여 한글(정자, 흘림, 판본체), 한문(해서, 행서, 예서, 전서, 초서)등 수준 높은 작품 총 50여점 전시

영·호남 구상작가 대작전

전시기간 8. 17(수)~8. 22(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구상작가회
 전시내용 울산 구상작가와 호남 구상작가의 연합 교류전으로 지역적 특색을 가진 다양한 구상계열 작품 총 55여점 전시

울산대 평생교육원 서양화 작품전

전시기간 8. 17(수)~8. 22(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평생교육원
 전시내용 울산대 평생교육원의 현대미술 실기과정의 작품전으로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한 평면 회화작품 총 50여점 전시

울산대 서양화 동문전

전시기간 8. 24(수)~8. 29(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그룹 1998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동문들의 정기전으로, 평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현대미술작품 총 60여점 전시

제1회 임경숙 사진전

전시기간 8. 24(수)~8. 29(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임경숙)
 전시내용 페루와 볼리비아의 독특한 문화 양식과 소통하며 문명 특유의 융합하는 삶과 풍경들을 시각적 감성으로 담은 작품 총 35여점 전시

Exhibitions

7·8월 전시가이드

제8회 경상사진동우회 회원전

전시기간 8. 24(수)~8. 29(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경상사진동우회
 전시내용 울산의 크고 작은 다리,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울산 시민의 만남, 소통, 화합의 장이 되어 준 다리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재조명한 사진 작품 총 60여점 전시

제5회 굿포토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8. 31(수)~9.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굿포토클럽
 전시내용 굿 포토클럽 회원 27여명이 한해동안 창작활동을 펼친 개인 테마의 다양한 사진작품 총 100여점 전시

제14회 울산수채화협회 정기전

전시기간 8. 31(수)~9.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수채화협회
 전시내용 울산 시민들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으로 애항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수채화 작품 총 50여점 전시

제21회 참빛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8. 31(수)~9.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참빛사진동호회
 전시내용 회원 각자 테마를 선정하여 2년간 영남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재조명한 작품 총 45여점 전시

제11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전

전시기간 8. 31(수)~9.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한국의사미술회
 전시내용 한국의사미술회 가을 회화작품 정기전으로 회원 25명의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 총 50여점 전시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합창단과 함께 할 재능 있는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모 집 분 야	채용인원	응 시 곡 목
청소년 교향악단	전 파트	○명	• 자유곡 1곡(무반주)
청소년 합창단	소 프 라 노 메조소프라노 알 토	○명	• 자유곡 1곡(당일 지정 반주자)

2.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또는 주소를 둔 자
- 만 24세 이하로써, 청소년 교향악단은 초등학교 4학년이상, 청소년 합창단은 중학생 이상

3.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칼라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3×4cm)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학교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곡목 악보 1부

4. 활동특전

- 연습시 소정의 교통비 및 연주수당 지급
- 전문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지도
- 우수단원에게 시립예술단 공연시 합동연주 및 협연 기회 제공
- 시립예술단 일부 연주회 단체 관람 제공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13.(수) ~ 7. 21.(목) 09:00 ~ 18:00**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사무국(관리동 2층)
※주 소 (44702) 울산광역시 남구 범영로 200(달동, 문화예술회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한함)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ucac.or.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우편접수인 경우 반드시 접수기간 내 도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전형일정

- 일 시 : **2016. 7. 23.(토) 14:00~**
- 장 소 : · 청소년교향악단 : 울산문화예술회관 교향악단 연습실
· 청소년합 창 단 : 울산문화예술회관 합창단 연습실

7. 합격자 발표

2016. 7. 27.(수) 14:00 이후, 개별연락 및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http://www.ucac.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란 게재

8. 기타사항

- 본 모집계획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전형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분실시 사진(응시원서 사진과 동일)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합격 또는 위촉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TS FRIEND 회원 가입 안내

01 울산문화예술회관의 『ARTS FRIEND』가 되려면,

구 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일반회원	만 19세이상	2만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만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만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만원(1명)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www.ucac.or.kr

02 『ARTS FRIEND』가 되시면,

월 1회 발행되는 『ARTS FRIEND』 우송 및 각종 공연정보 안내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댄스, 모닝콘서트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한 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03 공연을 즐기는 TIP!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 100% 즐기는 법

- 1 문예정보지 『Arts Friend』로 어떤 공연을 볼 것인지 선택
- 2 예매가 오픈되면 문자 확인 후, 조기에매 해서 좋은 자리 잡기
- 3 다양한 혜택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즐기기
- 4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입장권 구매하기



세계적인 두 연주자의 환상적인 하모니!

바이올리니스트
쇼지 사야카 &
피아니스트 손열음

2016. 9. 28.(수)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가격 3만원 (유료회원 30%)

관람연령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공연시간 90분, 휴식 15분)

문의 052-275-9623 www.ucac.or.kr
